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혁남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다. 다수 의견만 큰 소리를 내고, 소수 의견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여론 균형성, 다양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지방은 모든 면에서 변방이고 지역민은 영원한 소수자일 뿐이다.

은 여론의 다양성 명분을 내세워 조·중·동에 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방송 사업까지 내주어 이들은 지역의 광고시장까지 침범하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역신문의 지나친 난립이다. 부산과 대구, 강원 지역을 제외하

고 대부분 지역의 일간신문들이 너무 많다. 송탄지의 밥은 한정되어 있는데 숟가락 들고 덤벼드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으니 모두가 배고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지역은 인구가 고작 65만 명 정도인데, 지역일간신문은 무려 13개이다. 인구비율도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넘쳐나는 도시이다. 발행부수가 1000부 미만이고 오직 공서에만 배달되는 신문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난립현상은 광주-전남, 경기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역신문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지역신문시장의 기능이 실패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일반시장의 경우 적자를 보는 회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퇴출된다. 그러나 지역신문시장은 새로운 신문이 시장에 진출하여 적자를 보더라도 결코 퇴출되지 않고 계속 시장을 넓혀 나가는 통에 건전한 회사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안철수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경쟁적인 덩핑으로 가격구조가 왜해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안철수의 생각, 128쪽), 이는 지역신문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어 보려던 일부 신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지역신문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남도청이 지역신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경남도에 지역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11개 신문사를 선정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자극받아 부산,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사이버 신문까지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소수의 신문사에게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격조건은 일정 수준의 발행부수를 유지하는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지, ABC(발행부수공사)에 가입했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원금은 신문사 임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지역신문 독자에 대한 구독료 지원, 취재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부 규제하듯이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중앙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주민의 삶 자체인 지역신문의 보호는 재래시장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신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리는 길은 지역민들이 될성 싹은 몇 개 신문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애정을 갖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2 비엔날레 성공, 시민들 손에 달렸다

2012 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내걸고 작가와 일반인이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협업프로젝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입장권 예매는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불황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개막을 2주일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입장권 판매는 비엔날레의 흥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인 만큼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광주의 대표 브랜드다. 지난 1995년 창설된 이래 20년 동안 지역의 문화지형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지난 2002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거점도시로 선정된 데에도 이 같은 '비엔날레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흔히 문화소비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가계가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문화생활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비엔날레는 한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에게는 이별 패일수록 문화를 즐기는 여부가 필요한 것이다.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도 2012 광주비엔날레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 넘어간 '3D 사업' 신중 투자 계기돼야

무리한 투자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의 한-미합작 '입체영상 변환(3D컨버팅) 사업'이 끝내 좌초될 위기다.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데다 광주시의 회 역시 미국 기술대사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불참기로 결정한 탓이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방위력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경제·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언제 신의를 저 버릴지 모를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전통 열방관계인 한-미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오는 29일은 경술축치 일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제에 강제 병합되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지 102년이 되는 날이다. 빼어난 과거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자. 나라사랑의 작은 발걸음으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애국포토를 널리 전파시키고, 안보의식을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통일된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우뚝이 서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야겠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장)

3D 사업'은 광주시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K2사와 한미 합작법인인 겐코(GAMCO)를 설립한 뒤 광주 CG센터에 미국업체의 3D 컨버팅 원천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감사원이 원천기술과 물량확보가 안 된 '국제사기'로 규정했음에도 72억 원을 선지불한 광주시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시간벌기 식으로 K2사에 끌려다녔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책임자 대책, 구상권 청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부터 해야 한다. 검찰과 시의회도 사물관계를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 칼럼



김점수

국민통합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박차를 가하고 위안부 문제 등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분경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뻔뻔스런 반응과 억지주장을 펴고 있어, 온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패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감성적인 애국심보다는 현 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광복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큰 경제 성장을 일구고 민주시민사회를 이루는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열풍을 만들어 냈으며, 지난 12일 막을 내린 런던 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35년간의 암울했던 일제치하와 전 국가 패하가 된 6·25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국가와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몰보지 않고 희생을 하였던 애국선열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고 보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된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세대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으로 우리의 힘을 소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국민간의 소통과 화해로 해결한다면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오늘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 안보상황을 올바로 바라보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의료 칼럼



강채미

휴가 후 피부 관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녹차와 감자를 이용한 피부 트러블 진정법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녹차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비타민 A는 피부 세포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작용을 하고,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가 부석부석하고 윤기가 없어지게 된다. 비타민 C는 기미, 주근깨를 예방하고 미백효과로 피부를 하얗게 가꿔주는 효과도 있다.

여름 휴가가 끝난 뒤에 햇볕에 장시간 노출돼 까맣게 피부가 그을린 사람들이 많다. 자외선에 빨갛게 그을렸거나 피부가 가려울 때 녹차 얼음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이 부엌을 때 눈가에 녹차 얼음 마사지를 해도 붓기가 속 빠지게 된다. 피부 진정을 돕는 녹차 성분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녹차에 밀가루와 함께 감자즙 또는 양배

근거리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재료로 효과만점이다. 하지만 평소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겨드랑이 안쪽 피부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입 먹어 푸르스름한 감자나 썩어 나온 감자로는 피부에 껌을 하면 안 된다.

감자의 알칼리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자극항원을 높여주며 피로회복의 효능이 있어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받는 피부에 효과적이다. 또한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미백효과, 해독작용, 세포 조직의 재생을 도와준다.

감자 껌을 만들기 위해서는 썩어 없고 잘 익은 감자를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을 제거하고 감관에 갈아준다. 감관에 간 감자에 밀가루와 꿀을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 주고 얼음에 마스드시트를 올린 후 감자껌을 넣고 루를 뿌린다. 10~15분 경과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주면 된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더 큰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섭취와 비타민 C 섭취이다. (박달나무의원 원장)

노후연금 가입할 때와 지급할 때 달라서야

고령화 사회에 누구나 노후에 대한 관심은 관심의 차원을 넘어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노후에 효도를 받아 자녀가 노후모를 부양하기를 바라는 시대는 이미 가버렸고 스스로에 대한 노후준비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세태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노령연금, 혹은 노후연금이다. 필자도 노후연금이 가입해서 지금 몇 번째 들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개인연금 상품이나 노후연금에

가입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걸로 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입해서 곳곳이 납입해온 개인연금 저축이 처음 가입할 때와 사정이 다르고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즉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가입한 연금 저축의 경우 56살이 되면 1년에 231만 원을 받고, 65살이면 760만 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과 금리로 따져볼 때 상

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즉 내가 실제 받게 될 돈은 65살이 된다 해도 한해에 130만 원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알려준 금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솔직히 막막하고 충격적이었다. 너무 액수가 적어서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것은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9%였던 이자율이 3%대까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받을 돈이 줄어든 것이다. 이자 수익사업의 배당금도 거의 받지 못하게 됐다. 정기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고객들에게 주어질 연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보험약관에는 받을 액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작은 글씨로만 적혀 있어서 큰 글씨로 쓰인 수익 예상액에 눈이 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도 대부분이 현금 변동형 상품이라서 이자율이 더 낮아지면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봐야겠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가입자들에게 이런 걸 더 확실히 알려줘야 할 것이다.

▲유민규·목포시 수감동

無等鼓

연이은 살인사건, 시신 곁에는 어김 없이 오로라 공주 스티커가 붙어있다. 지난 2005년 방은진 감독이 만든 범죄 스릴러물로 주인공 엄정화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오로라 공주'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정순정(엄정화 분)은 5건의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다. 그녀는 자신의 초등학교 딸이 주변

영국의 보수주의 대표 정치이론가이자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는 "선한자의 침묵은 악의 승리를 도와준다. 침묵은 곧 동조고 방관이며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침묵과 외면으로 한 발 물러서 있을 때가 많다. 철학자 버크나 오로라 공주의 정순정(엄정화 분)이 말하러 했던 우리사회에 대해 주변에 대해 관심과 행동보다 침묵과 방관으로 악의 승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때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매체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경정부	2200-616	전산팀	2200-685
대표 FAX	222-4267	문의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시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